

## 고난 주간 수요일 아침

본문 - 매일성경 마가복음 14장 53-72절

### #1. 거짓 증언

**55-59절**,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예수님이 잡혀 가셨습니다.

그런데 진실과 진리가 가득해야 할 대제사장의 집에 거짓 증언으로 가득합니다.

거짓 증언으로 가득한 것은, 참 진리이신 “예수를 죽이려고”... 이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은 진리와 진실을 따릅니다.

죽음이 있는 곳은 거짓과 속임수를 따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았다 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있을 때만, 생명이 있습니다.

### #2. 참된 증언

**61-62절**, “대제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

진실과 진리는 짧습니다. “내가 그니라”

거짓일수록 뭔가 속이려고 할수록 말이 많고 길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참된 증언을 들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64-65절**, “..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 침을 뱉으며 ... 주먹으로 치며 ... 손바닥으로 치더라”

진실과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진리를 볼 줄 압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보다 진리에 대해 분노를 표출합니다.

### #3. 베드로의 부인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70절**, “또 부인하더라..”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진리를 볼 줄 아는 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심지어 부인을 넘어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믿음 보다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믿음을 부인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마비시키는 독(poison)입니다.

### #4. 에필로그

세상 사람들 안에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지혜로 여기고, 사람들의 기득권과 필요한 재물(돈)을 얻게 해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죽음이 가득합니다.

성도들 안에는 두려움이 큼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기 보다, 두려움에 의해 믿음이 마비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며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부활주일을 기다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 봅시다.

혹, '거짓과 속임수'가 내 안에 가득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두려움'으로 인해 내 믿음이 마비되어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참된 증언자이신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우리를 살리는 분,

우리를 거짓과 속임수,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